
저자 (Authors)	김민정
출처 (Source)	문화과학 76, 2013.12, 130-149(20 pages)
발행처 (Publisher)	문화과학사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306351
APA Style	김민정 (2013).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버려지는 동물, 인간소외. 문화과학, 76, 130-149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1/27 13:54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애완동물, 반려동물과 버려지는 동물, 인간소의

김민정_성공회대 강사

급성장하는 애완동물 산업과 버려지는 동물

1990년을 전후로 애완동물이 급증하면서 2000년대에는 애완동물 산업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고급 시장 전략이 추구되고 있다.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국내 인구는 1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사회동향 2012’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23.9%로 4인 가구(22.5%)보다 높은 수치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 중심의 사회문화 소비 현상이 바뀌고 있다.

최근 20여 년간 도시가계의 비목별 소비지출 구성비를 살펴보면, 1980년대 식료품의 비중이 43.2%였던 것이 1990년대에는 32.2%, 2000년대는 27.4%로 급격히 감소했다. 반면 교양오락과 외식 등의 소비 비중은 1980년대 1.8%였던 것이 2000년대에는 4.9%로 증가했다.¹⁾ 이러한 소비 유형의 변화는 애완동물 산업이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애완동물 시장은 갈수록 고급화되고 다양해졌다. 애완동물 사료 상품에 유기농 사료뿐 아니라 건강식품과 한방 영양제품 등이 등장하면서 ‘웰빙’과 ‘케어’ 중심의 고급화가 추구된다. 애완동물 시장 규모는 올해 대략 2조원 규모다. 애견미용이나 의료 분야에만 국한됐던 애완동물 산업은 애완동물 관련서비스 품목까지 폭넓게 다양해져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6조원에 이를 것이다. 오늘날 애완동물은 주인이 먹다 남긴 음식을 처리하거나 집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양질의 좋은 사료와 좋은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웰빙 서비스를 받는 귀한 존재다.

애완동물 시장의 급성장 이면에는 버려지는 동물 증가 현상이 존재한다. 키우는 사람이 증가한 만큼 버리는 사람도 많아졌다. 애완동물은 대략 1,000만 마리로,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집에 1마리 꼴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셈이다. 반면,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 등이 거리에 버려지고 방치된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遺棄) 동물과 그에 따른 부작용은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이 나왔는데, 서울시의 경우 동물을 맡아서 보호할 수 있는 직영 보호센터와 동물의 행복추구권을 담은 ‘서울시 동물현장’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애완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일종의 주민등록 칩을 몸에 삽입하거나, 칩이 들어있는 목걸이 또는 인식표를 거는 방법 등이 등장했다.

2000년 전후에 설립된 약 10여개의 동물보호단체들(한국동물보호연합, 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동물보호협회, 동물자유연대, 동물사랑실천협회, 카라[KARA], 하호,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등)은 동물보호운동과 동물 키우는 사람의 인식 전환을 강조한다. 이들 단체 중 일부는 애완동물(per)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다. 인간 일방이 애완동물을 키운다면, 반려동물은 인간과 교감하

1) 신광영·이영훈 외, 『서비스사회의 구조 변동: 노동체제의 전환과 생활세계의 변화』, 한울, 2008.

는 동물로 키우는 사람과의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인간은 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표정과 눈빛, 몸짓, 소리 등을 통해 서로 정서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글에서 언급하는 애완동물은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키우는 생명체로 함께 생활공간을 공유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주체로 한정짓는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 고민할 것이다. 애완동물도 증가하고, 버려지는 동물도 증가하는 이율배반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우선 애완동물을 키우는 현대인이 증가하는 이유를 고민해보자. 그리고 인간 외로움이 증가할수록 애완동물이 증가한다는 심리학 설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 소외와 외로움이 만연해 있는 현대사회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은 어떠한 의미인가? 소외론의 관점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문제를 설명해보자. 두 번째로 키우는 이유와 버리는 이유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 동물보호단체와 반려동물보호운동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의 실효성을 고민해보자.

외로움과 반려동물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다. 사회 동물인 인간은 우리 자신과 관계를 맺고 타인과 세계와 관계 맺는다. 인간의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 교감은 인간관계뿐 아니라 동식물 등의 여타의 생명체와 초자연 현상, 종교 등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진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과 교감하면서 외로움과 힘든 시간을 견딘다. 기존 연구논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사회정서면에서 더 건강하다는 반려동물효과(companion animal effect)를 밝혔다.²⁾ 반려동물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반려견 소유자들은

2) K. Allen, "Are pets a healthy pleasure? The influence of pets on blood pressur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2 (2003), 236-39.

비소유자에 비해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에 적극적이며 결과적으로 외로움 수준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다.”³⁾ 이러한 점에서 특히 외로움이 증가하는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반려동물에게서 정서 교감을 찾는다.

애완동물을 기르면 좋은 점이 많다.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존중함을 배우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근면성과 책임감까지 길러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심리치료적 기능과 교육적 역할을 하는 셈이다. 애완동물은 현대사회에서 가족 성원의 정서적 유대감과 역할이 약화되면서 각박해진 삶과 소외감에 정과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그만이다. 애완동물은 독거 노인이나 어린이들에게는 물론이고 보통 어른들에게도 감정적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특히 애완동물은 애정 결핍과 고독 그리고 내성적 성격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좋다고 한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공중도덕과 질서를 존중하는 책임의식도 함께 길러져서 좋다.⁴⁾

오늘날 애완동물은 정서 결핍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친밀한 존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서윤은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적 의미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⁵⁾ 첫 번째로 반려자로서의 애완동물이다. 애완동물은 소비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친밀하게 감정을 상호 교감하는 동반자이다. 두 번째로 근대 이전 사회에서 애완동물이 경제적·실용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애완동물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세 번째로 애완동물은 새로운 감정공동체를 형성해주는 촉매제이다. 이처럼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은 동물과 인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과 교육학, 보건학, 복지학 등의 연구에서는 애완동물이 인간에게 어떠한

3) 김세영, 「반려견 소유와 외로움의 관계」,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8.

4) 현택수, 「사람보다 애완동물이 더 좋아요...」, 『지방행정』, 52권 596호, 2003.

5) 이서윤,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9.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과 애완동물과의 상호작용을 연구했고 교육학에서는 애완동물과 아동의 정서 발달 관계를 살펴봤고 보건학에서는 애완동물이 사람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고찰했고 복지학에서는 애완동물이 노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대다수의 연구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이 아동과 노인, 건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혔다.

인간은 사회관계 안에서 산다.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이 인간사회에서 발생한다면 인간사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일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 모두가 외로움의 해소 때문에 동물을 키우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 특히 (경제 능력이 일정정도 안정이 된) 독거인과 노년층이 증가한다는 것은 인간관계의 부족에서 오는 것을 채우려는 증거일 것이다. 2012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현대인은 자신의 외로움을 동물과의 관계로 대체하려 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가구수가 늘어난다고 분석했다.⁶⁾

대도시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 모리스는 외로운 현대인의 모습을 동물원에 갇힌 동물로 비유한다.

동물원의 동물은 외롭게 혼자 갇혀 있거나 비정상적으로 뒤틀린 사회 집단에 속해 있다. 게다가 다른 우리에게 갇혀 있는 다른 동물을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그들과 진정한 접촉을 가질 수 없다. 도시에 사는 인간의 사회 환경이 동물원의 상황과 유사하다. 도시 생활의 외로움은 잘 알려진 위험이다. 인간은 비개인적인 거대한 군중 속에서 묻혀 자신의 존재를 쉽게 잊는다. 자연스러운 가족 집단과 단일 부족의 개인적 관계는 뒤틀리거나 짓눌리거나 산산조각나기 십상이다. 작은 마을에서는 모든 이웃이 동지거나 적이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⁷⁾

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1년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2.

7) 테즈먼드 모리스, 『인간 동물원』, 김석희 옮김, 물병자리, 2003, 59.

외로움은 사회관계가 결핍되었거나 친밀감을 느낄 대상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외로움은 인간소외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소외의 한 현상으로 현대인은 외롭다. 이 밖에도 심리적 불안과 초조함, 우울증, 인간성 상실 등이 인간소외의 여러 유형들이다.

인간소외

산업사회론은 현대사회의 대량생산과 관료조직,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기계시대가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대인은 합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고 개성을 잃은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고립되어 불안과 분열을 늘 경험한다. 그 결과 감각 쾌락이나 소비에서 위안을 찾고 정치에 무관심한 대중사회의 자기소외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기계 문명과 거대한 산업 조직 및 관료조직, 정보사회의 부작용으로 인간성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인간소외가 발생한다. 이러한 입장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영향을 받은 에리히 프롬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보는 소외는 거의 전면적인 것이다. 현대의 소외는 사람의 일, 소비하는 물건, 국가, 동료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인간은 그 이전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세계를 스스로 창조했다. 그는 그 자신이 만든 전문적인 기구를 이끌어갈 복잡한 사회기구를 구축했다. 그러나 이 모든 창조물은 이제 그의 위에 서 있다. ...19세기에는 ‘신은 죽었다는 것이 문제였지만 20세기에는 ‘인간은 죽었다는 것이 문제다. 19세기에는 비인간적인 잔인을 의미했지만 20세기에는 그것이 정신분열적인 자기 소외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인간이 노예가 되는 것이 위험했지만 미래에는 인간이 로봇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위험하다.⁸⁾

관료조직 사회에서 인간은 자동기계화를 발전시키면서 인간소외를 증대시켰다. 사회의 소외 구조가 개인의 감정의식에 있어서 불안과 연대의 상실, 충동적 감정 지배, 인격의 분열, 개성의 상실 등을 가져왔다. 산업사회론의 소외 개념은 주로 문명비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현대 산업사회가 소외의 원인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롬은 현대사회의 소외 현상을 분석하고 소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유물에 집착하는 현상을 밝혔다.

헤겔과 포이어바흐, 맑스의 소외 개념은 개개인의 자율적인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을 뜻한다. 개개인의 자율적인 통제력이 외부 세력에게 이전되어 개인 스스로의 목표와 의도는 무시되고 개인은 외부 세력의 결정에 종속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자신이 만든 산물에 대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에 대해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 소외는 의식주를 비롯한 물질적 생산에서 비물질적 생산인 예술 창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헤겔은 소외의 원인으로 인간 정신을 주목했고 포이어바흐는 종교에서 찾았다. 헤겔의 소외는 절대정신으로부터 이질이 되는 현상이며 포이어바흐의 소외는 인간이 신의 노예로 자신을 인식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맑스는 소외는 사회의 물질관계 및 사회구조의 결과라는 점에서 헤겔과 포이어바흐를 비판했다. 맑스는 인간이 실제로 생활하는 물질의 현실에서 소외의 기원을 밝혔다. 이는 소외가 단지 감정이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경제적 사실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맑스는 여타의 종과 구별되는 인간 활동의 특징으로 노동을 주목했다. 인간은 자연과 물질대사를 자신의 노동 행위를 통해서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또한 노동은 노동수단을 이용하여 인간의 목적을 노동대상 속에 실현하는 '합목적적 활동'이다. 맑스는 소외의 원인을 인간 자신이 만든 노동 생산물이나 노동과 관계 맺

8) 에리히 프롬, 『진정한 사회』, 김병익 옮김, 범우사, 1984, 118, 333.

는 방식에서 찾았다.

집단 노동의 잉여생산물을 소수가 통제하는 계급사회가 등장하면서 직접 생산자는 노동 생산물의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노동 과정에 대한 간섭도 받게 된다. 사회의 부는 소수에게 집중돼 축적되는 데 반해 대다수 직접생산자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궁핍해지는 계급사회는 노동의 소외를 만든다. 특히 노예제와 신분제, 노동대상(토지)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 노동에 기초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소외가 체계적으로 발생한다.

공동노동에 기반한 분업 생산이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주요한 토대이다. 하지만 직접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분리는 개인을 고립시킨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은 쪼개지고 나뉘어진다. 쪼개진 개인은 시장을 매개로 사회관계를 맺게 된다. 사회의 불평등한 관계는 시장에서 평등한 개인의 집합으로 바뀌게 되는 물신주의로 전도된다. 생산수단에서 분리된 개인들은 자신의 노동과 노동대상물로부터도 소외된다.

맑스는 노동소외를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로 노동자는 스스로 노동 과정 및 생산 과정을 결정내리지 못한다. 자본가는 출퇴근 시간뿐 아니라 작업 방식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깨끗한 산업으로 알려진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작업 공정은 개선되지 않는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가 노동 방식을 통제하지 못하는 구조 자체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두 번째로 노동자계급이 전 세계의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생산물의 통제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이들의 몫이다. 노동자가 자신이 만든 노동 생산물에서 분리돼 생산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소외는 노동 현장 어디에서든 발견된다. 노동자가 만든 생산물은 공장주나 사장의 소유물이 된다. 돈이 충분히 없다면 노동자는 자신이 만든 생산물을 살 수 없다. 특히 고급 명품이나 사치재를 만드는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을 가지고는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의 상실감도 클 것이다. 노동을 하면 할수록 직접 생산자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과 생산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상실감으로 정신 건강은 악화된다.

세 번째로 생산과정에서 인간들의 관계는 화폐를 매개로 한 사물 관계로 나타난다.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서로 소외된다. 고용관계에서 사람 간의 관계는 사라지고 돈의 관계가 지배하게 된다.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쟁관계는 인간을 그 자체로 평가하기보다는 학벌, 성적, 외모 등으로 평가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을 그 자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한다. 결국 인간으로부터 소외가 발생한다. 네 번째로 인간 본성의 다양한 측면은 사라지고 이기주의, 경쟁만이 강조된다. 인간 본성으로부터의 소외가 발생된다.

노동소외는 인간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소외된 노동은 자연을 인간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인간을 인간 자신의 고유한 기능, 생명 활동에서 소외시켜 인간중으로부터 소외시킨다. 그리고 소외된 노동은 인간의 정신생활, 인간다운 생활로부터 소외시키고 결국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외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노동소외는 우리의 생활에도 적용시켜볼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소외 사례들은 현대 세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자연의 소외는 기후변화뿐 아니라 자본주의 산업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수많은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신체의 소외는 비만이나 식욕 부진 현상, 언론에 끊임없이 나오는 성(性)의 상품화와 왜곡 따위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인간 사이의 소외는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희생양 만들기가 널리 퍼져 있는 데서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배자들이 부추길 뿐 아니라 일부 노동자들도 받아들이며 내면화 한다.⁹⁾

소외 노동은 소외 사회를 만든다. 소외 사회에서 인간은 소외를 늘 경험한다. 이렇게 소외가 만연된 사회에서 애완동물은 소외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이유가 전적으

9) 존 몰리뉴,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천형석 옮김, 책갈피, 2013, 24-25.

로 외로움에 대한 방안은 아니다. 인간은 동물의 일부이고 생태계의 일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생존 토대인 인간과 동물, 인간과 환경 사이의 교감 역시 필수적인 요소이다. 도시와 농촌이 분리된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생태 감수성과 자연생태계가 소중하다는 인식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인간과 여타의 동식물과의 교감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꼭 필요한 과제이다.

소외 노동은 단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외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자연 소외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단절을 만든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은 노동방식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직접생산자와 생산수단이 맺는 생산방식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파괴된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존 벨라미 포스터의 지적처럼, 노동이 더욱 더 동질화됨에 따라 많은 자연도 동질화되면서 노동이 겪은 것과 유사한 악화과정을 겪었다.¹⁰⁾ 노동자의 기능으로부터의 노동과정의 분리와 실행으로부터의 구상의 분리는 복잡하고 숙련된 노동을 단순한 비숙련 노동으로 전락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산림 서식지의 자연적 복합성은 산업적 산림 플랜테이션의 인위적 단순성으로 전환된다.

소비자소외, 버려지는 동물

인간소외의 원인이 사회에 있고 소외 노동이 인간소외를 낳는다면 애완동물의 역할은 일시적인 일종의 통증 완화제일 것이다. 소외에 노출된 현대인에게 애완동물은 소외의 치료제가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애완동물이 위안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애완동물을 기른다는 것은 현실의 여러 장벽에 부딪치게 된다는 것

10) 존 벨라미 포스터,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추선영 옮김, 책갈피, 2007.

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동물 유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여건의 어려움과 경제적 여건으로 크게 나뉜다. 늙고 병들고 여러 사정 등으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탁할 곳이나 마땅히 돌볼 곳을 찾지 못해 버리는 것은 사회문화적 여건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이다. 국내에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조사된 결과는 없으나 주요 언론에서는 관리비용의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예컨대 사료와 간식 등 애견 1마리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한 달에 최소 10만원을 넘는다. 여기에도 심장 사상충에 감염되면 검사비와 예방접종 등 치료비만 70만원이 소요된다. 애완견을 키우는 비용은 아이 한 명을 양육하는 것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원인들이다. 애완동물을 버리는 행위기제를 좀 더 고민해보자.

애완동물을 기르는 일이 노동의 소외에서 발생된 외로움에서 비롯되었다면 애완동물을 버리는 일은 소비자소외에서 벌어지는 것일까? 자본주의에서 애완동물은 생명체가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된다. 살아있는 존재를 생명이 없는 물체와 사물로 보는 대상화(objectification)는 동물을 상품으로 만든다. 이로써 소비자는 일반화된 상품체제에서 상품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소비는 개인 욕구와 욕망을 소비 행위로 발현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사회문화적 행위이다. 대중소비론은 이 과정에서 소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주의는 물건이나 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데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이다. 소비는 물건의 사용가치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사회적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소외는 소비영역까지 침투한다. 개인 소외는 소비를 통해 분절적 정체성의 형성을 낳는다. 단지 상품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정체성 의식을 결합한 광고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촉진시킨다.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성장하고 비싼 차와 아파트를 과시하는 자본주의 문화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비싼 ‘애완동물’을 옆에 끼고 과시하면서 동물을 생명이 아닌 상

품으로 인식한 이들은 개들을 서슴없이 버렸으며, 그렇게 동물을 귀엽고 예쁘기만 한 ‘상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방송의 힘이 컸다고 지적한다. 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온전히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예쁘고 귀여운 이미지만을 제공하고, 시청자는 그 이미지에 맞춰서 삶의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한 생명이 아닌 상품을 쉽게 ‘구입’하고 쉽게 버리게 된 것이다.¹¹⁾

다만 소비는 결코 생산의 영역과 동떨어질 수 없으며 무엇보다 개인별 소득 수준 내에서 한계를 설정하게 된다. 개인이 어떤 물건을 아무리 욕망하더라도 그 상품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상품이 시장에 진열되었다더라도 돈이 없다면 그 욕망은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의 소비 욕망이란 현실적 조건에서 규정되고 제약당한다.

허육재는 소비자소외란 소비자의 소비행위가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한 채, 사회의 경제적·기술적 구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소비자가 주변화·타율화·도구화되는 현상이라고 그 개념을 정리한다. 그는 소비자소외를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첫째, 소비재로부터의 소비자소외와 둘째, 유기적 존재로서의 소비자소외, 셋째, 소비자사회로부터의 소비자소외, 넷째 자아로부터의 소비자소외가 그것이다.¹²⁾

소비자소외의 유형화는 맑스가 제시한 노동소외의 네 가지 유형화를 기반으로 구분된 것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 쪽의 <표 1>과 같다.

소비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에 대한 막연한 동경 혹은 애견인에 대한 사회 이미지로 구입한 애완동물이 소비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맞지 않는 경우를 경험한다. 그리고 소비자인 애완동물을 구매함으로써 소비자들은 상호 관계를 맺게 된

11) 조중현,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2013, 71.

12) 허육재, 「소비자소외의 개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6.

<표 1> 소외의 유형화와 소비자소외의 유형화¹³⁾

구분	개인적 측면	유기적 측면 (관계적 측면)	사회구조적 측면	사물과의 관계 측면
노동 소외	자신의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타인(자본가)에게 자신의 노동이 통제되며 노동력 착취 발생	시장구조에서 노동 가치가 교환가치로 전환되면서 물신주의 발생	상품 물신주의
소비자 소외	자아로부터의 소비자소외: 수단적 합리성이 강요하는 이성적 판단만이 중요하여 내면의 진정한 소망을 알지 못하게 됨	유기적 존재로서의 소비자소외: 기호화된 소비재를 구매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관계 정립이 소비재를 통해 이루어짐	소비사회로부터의 소비자소외: 사회구조의 유지를 위하여 소비자는 소비욕망을 강요받음 또한 수단적 합리성에 가려져 소비행위가 올바른 것으로 인식됨	소비재로부터의 소비자소외: 개인의 소망이 목적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도록 소비재가 강압하는 경우 소비물을 획득함으로써 안정감을 추구하는 경우

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소비가 매개함으로써 소비자소외가 발생한다. 소비가 생존을 위한 자기 욕망의 실현이 아니라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한 행위로 애완동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소외가 발생한다. 이러한 소비재의 유혹에 소비자는 구매할 수 있는 화폐 규모에 따라 구매 좌절에서 오는 무기력을 느낄 수도 있고 소비재를 획득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과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다.

무력감과 규범상실, 고립감 등의 소외 요인이 소비자의 중독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실증 연구한 논문¹⁴⁾은 중독적 소비가 소외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했다. 개인이 처한 사회물질적 조건 및 구조에서 소비행위가 결정된다. 소비를 통해 자아실현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소외된 소비자는 애완견을 키우는 행위로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다. 이는 소외의 원인과 정면으로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형태로 상품화된 대상에 의존하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직

13) 같은 글, 41-42 재구성.

14) 김선우, 「인터넷 중독의 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소외를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장 생활의 스트레스, 혼자 사는 외로움 등이 애완동물을 원하게 되지만 애완동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소비자소의 때문에 애완동물을 버리게 된다.

노동소외와 소비자소외는 소외의 발생기제인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개인은 소외 발생이 개인의 무능력과 비이성적인 행위에서 발생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인식의 과정은 소외의 발생을 개인의 윤리적 문제와 생활 태도의 문제로 환원하게 만들고 더욱 더 개인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힘으로 작동한다. 특히 심리학은 소외를 개인이 체험하는 심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접근은 개인이 직면하는 일상 상황을 교정하거나 개인의 노력으로 탈소외, 자유의지와 자기다움의 발견을 추구하는 해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소외는 개별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근대사회의 등장과 함께 보편화된 소외 개념은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해왔다. 소외의 해결 지점은 실질적 노동 활동의 새로운 지향에서 찾아야 한다.

해결 방안 논의

반려동물보호운동은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해법으로 개인의 윤리의식 개선과 사회적 여건의 개선을 제시한다. 우선 애완동물을 반려자로 여기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강조하는 입장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애완동물을 버리는 원인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가 없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원치 않아서(39.6%), 개에 문제가 있어서(19.3%), 생활환경 변화(17.4%), 이웃의 항의(7.5%), 주인의 건강상 이유(5.2%),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3.0%), 집을 나간 경우(1.3%) 등이 있다.¹⁵⁾ 이러한 통계 조사만을 볼 때 유기동물이 생겨나는 주된 원인은 키우는 사람의 심정 변화 및 부양 능력, 키우는 환경의 변화

등에 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 애완동물 주인의 개인 품성이 부각되고 애완동물에 대한 본성과 기본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2006년 한강맨션 고양이 사건과 동물 학대 사건, 개똥녀 사건 등은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개인 품성의 심각성과 잔인함을 전해준다.

다음은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들이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키우지 말자.

1.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이 10년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절대로 키우지 말자!
2. 그저 예쁘고 좋다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키우지 말자!
3. 온 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절대로 키우지 말자!
4. 반려동물의 어릴 때 모습만 보고 사서 키우려 한다면 절대로 키우지 말자!
5. 때로 돈이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절대로 키우지 말자!
6. 관리 소홀로 잃어버릴 수도 있다면 절대로 키우지 말자!
7. 이름표 달아주는 것을 미룰 거라면 절대로 키우지 말자!
8. 자신의 사정이 달라질 경우 다른 곳으로 보낼지도 모른다면 절대로 키우지 말자!
9. 임신하거나, 이사 가거나, 유학 가거나, 이웃이 싫어하거나, 어른들이 반대하면 포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키우지 말자!
10. 너무 크다고, 많이 먹는다고, 냄새 난다고, 털이 날린다고, 병이 들었다고 나이가 많아졌다고 버릴 거라면 절대로 키우지 말자!¹⁶⁾

이러한 접근은 애완동물을 키우기 전에 동물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강조한다. 대표적으로 동물자유연대는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과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캠페

15) 명보영, 「유기동물보호센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13, 2.
16) 조혜경, 「또 다른 가족 반려동물」, 『寶雲』, vol. 37, 충남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2006, 109.

인 등을 통해 바람직한 애완동물 문화를 홍보한다. 애완동물에 대한 특성과 기본 지식을 미리 알아둔다면, 애완동물에 대한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동물을 버리는 행위를 줄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소비자를 설정해서 소비자소외로부터의 극복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소비자소외의 문제를 소비자의 주체성 회복으로 국한시키는 단점이 있다. 생산과 소비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 사회구조에서 개인의 의식 개선은 ‘제한된’ 사회구조 내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한계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정형화된 자판기 내에서 개인의 소비를 결정해야만 하는 사회구조를 주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가해자를 비난하는 접근 방식과 유기동물의 구조 자체만에 집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의 차원을 놓치게 된다. “특정한 동물들에 대한 감정이입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했어도 운동의 실천방식에 있어서만 큼은 큰 구조를 조망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끼며...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 속에서 법·제도·문화·교육 등 시스템 자체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야 한다.”¹⁷⁾

두 번째로 유기동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구조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자본주의에서 인간 대 여타의 생명체가 이분법적으로 구분되고 이윤중심주의에 기초한 인간중심주의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보호·관리보다는 손쉽게 안락사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10일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의 대상이 된다.

현행 유기동물에 대한 실태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자.

유기동물은 돌보는 사람이 없이 방치되는 관계로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특히 광견병의 경우 국내에서는 1907년에 처음 발생보고가 있는 후 1993년부터 2003년

17) 조중현, 앞의 글, 117.

사이에 가축 및 야생동물에서 총 364건의 광견병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개에서 147건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5명의 인체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공격성이 있는 개체는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유기동물의 관리를 위해 1998년 서울시와 2002년 광주광역시에 뒤이어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별로 동물보호소가 생기게 되었지만 대부분 전임 수의사가 없고 열악한 재정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탓에 동물보호소에 입소한 동물들에 대한 질병조사를 포함하여 방역·위생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기동물의 비인도적인 방안의 처리가 대부분이며 법정보호기간 직후 도태가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안락사에 대한 기준이 없고 고통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으며 적절한 의료 조치 없이 자연사(병사)되는 개체가 대부분이다.¹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버려지는 동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보호단체는 문제의 해결 지점이 아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는 동물이 버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역할보다는 사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처리하고 수습하는 역할이 강하다. 이러한 역할마저도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등 제반 시설 등의 미흡으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버려지는 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처리 방식과 구제역에 걸린 가축에 대한 처리 방식에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박상표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관리가 ‘생명’의 관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닌 ‘이윤’의 논리에서 처리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¹⁹⁾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가축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대량 매물 대상이 된다.

구제역이나 신종플루는 국가 위기 관리 대상 전염병 목록에 들어 있다. …그런데도 사람의 인플루엔자 대응책으로 살처분은 검토된 적도 없으며, 실행된 적도 전혀 없다. …당연히 사

18) 명보영, 앞의 글, 2-3.

19) 박상표, “정부의 소·돼지 살처분, 과연 잘못된 선택이었나?”, <프레시안>, 2011. 4.

12.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412081006

람은 치료약이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원 치료를 기본적으로 실시한다. 그런데 왜 가축은 살처분을 시키고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소와 돼지는 인간의 식량을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산업 동물이기 때문이다. 만일 소와 돼지를 사람처럼 격리 병실에 입원시켜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수액 등의 약물로 치료를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산업 동물을 한 마리씩 개체 치료를 할 경우 소요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이 부분에서 바로 윤리적 · 종교적 접근과 경제적 · 현실적 접근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²⁰⁾

자본주의에서 동물은 법률적으로 ‘물건’, ‘상품’으로 취급된다. 고양이 인형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고양이는 같은 격으로 처리된다. 상품은 인권의 대상이 아니라 소유자의 물권의 대상이다. 사회적으로 버려지는 동물에 대한 처리 방식이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냉혹한 현실이다.

대안

이 글에서는 증가하는 애완동물과 버려지는 동물의 상반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원인으로 인간소외를 주목했다. 인간소외의 근본 원인이 치료가 되지 않는 이상 애완동물이 증가하고 버려지는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직접 생산자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생산물을 직접적으로 소유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한다. 노동은 노동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고 노동할 때 그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노동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는 낮설고 적대적인 세계의 힘인 소외를 강화시킨다. 자본주의는 노동력을

20) 같은 글.

착취할 뿐 아니라 인간 노동을 대상화·상품화하며 생산과정에서 노동자의 능동적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인간 삶의 소외를 낳는다. 인간 노동으로 창조된 모든 대상은 판매 가능한 상품이 되며 결국 모든 인간관계가 사물화된다. 그에 따라 상품만능주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된다.

반려동물은 정서를 공유하면서 ‘일정부분’ 외로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지만 사람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정서의 관계성까지는 충족시켜줄 수 없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과 함께 있더라도 그 관계가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관계를 온전히 대신 할 수는 없다.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노동하는 방식은 소외, 외로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노동소외는 인간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인간사회의 소외 현상은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소비의 대상, 사물 그 자체로 보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 사이의 생명체의 공감 형성을 방해한다. 인간 개인의 소외는 타인과의 공감 형성과 인간 외의 생명체와 연민을 맺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사회의 권력관계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인간이 지배하는 동물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측면에서 동물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활동가들은 “...동물권 운동을 ‘단순히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닌 ‘권력관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분석한다.²¹⁾ 불평등한 사회관계는 인간과 동물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피터 싱어가 주장하는 자기가 소속된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왜곡된 태도인 종차별주의(speciesism)는 인간사회의 불평등한 경제사회구조와 함께 작동한다. 사회 약자에게 혹독한 사회는 살아있는 생명체, 동식물에게도 혹독하다. 학대받고 버려지는 동물의 문제는 단지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사회 자체의 문제다.

21) 조중현, 앞의 글, v장.

따라서 불평등한 인간과 동물 관계는 인간사회의 불평등한 정치경제 관계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인간사회의 불평등한 관계와 인간소외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를 변혁하기 위한 실천활동은 인간과 동물 관계를 개선하는 작업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다. 소외된 인간이 존재하는 한 애완산업은 고급화 및 양극화 현상을 보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버려지는 동물 또한 증가할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이 애완동물을 원하면 원할수록 동물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며 과시형 소비로 동물을 취급하게 되며 소외된 소비로 인해 고통 받는 동물은 늘어날 것이다.

인간소외는 애완동물의 증가와 더불어 버려지는 동물도 가속화시키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둘러싼 사회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현실에서도 확인된다. 인간과 동물간의 왜곡된 관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재, 이는 바람직한 인간사회의 관계 개선이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한다.